

정청래, 국회의장·총리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협력”

鄭 “개혁·내란척결 결단 많이 해달라”
우의장 “개헌 힘 모아야” 당부
金총리엔 ‘당정대 원팀’ 강조
金 “이·정·김 동심, 개혁 호흡 맞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하고 “집합·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 등에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본

회의 법안 상정 등을 할 때 우 의장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정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지금 매우 어렵고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가라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어진 과제”라며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과 정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으로 17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인연도 화두였다.

우 의장은 “저와 정 대표는 입사 동기”라며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했는데 오늘 국회의장과 여당 당 대표로 만나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다”며 웃었다.

정 대표도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당 대표로 이렇게 만날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며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를 찾은 김 총리와 만나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총리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 국정철학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다”며 ““이심김심(李心金心)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본다. 저 또한 ‘이심정심(李心鄭心)’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 뒷받침을 총리께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자주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의 인사 방향인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주권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 강하게 들고 오신 정청래 대표가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운명적·필연적”이라고 당선을 축하했다.

이어 “대표께서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李鄭金) 동심’이라며 ‘첫 일성으로 개혁을 폭풍처럼 속도감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한편으로 속도감 있게, 한편으로 정밀하게 잘되도록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정가 프리즘

양부남 “광주 북구·광산구 어룡동 ‘특별재난지역’ 유력”

윤 행안부 장관 “이 대통령에 건의 예정”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빠르면 이번 주 중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데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 대통령께 특



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도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질의에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은 각각 자치구 단위와 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1차 선포에서 제외됐다”며 “2차 선포에서는 민생을 살피는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에서는 사망 2명, 이재민 417명이 발생했다. 시설 피해는 총 3천599건(공공 470·민간 3천129), 피해 복구비는 총 332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복구비와 생계지원금도 확대된다.

/김진수 기자

이개호, 함평 수해 현장서 복구 활동 ‘구슬땀’

“피해 심각…정부 등 지원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5일 연이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함평을 주택가와 전통시장에서 가재도구 세척, 상가 내 토사 제거, 폐가물 처리 등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다.

함평읍 지역은 지난 3일 1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 상점이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이 의원은 “상가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상품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재의연금과 자원 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4일에도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등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 우선지원, 풍수해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상품개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與 수석대변인에 박수현…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유임

정청래 대표, 추가 당직 인선

전략기획위원장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수석대변인에 박수현 의원(재선),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재선)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

권한업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추가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재선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초선 차지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대변인단은 박 수석대변인과 초선 의원 4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임명된 권 대변인에 더해 이날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이 추가로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원의 인사인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이 유임했고,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은 재선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3선 유동수 의원, 사회수석부의장은 초선 최기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까지 발표된 당직 인선을 보면 정 대표가 공약한 ‘실사구시형 탕평인사’ 기조에 따라 계파와 지역, 성별 등을 두루 안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측근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한 의원들도 일부 등용했다.

대표직으로 경제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유동수 의원은 지역구가 박 의원과 같은 인천의 3선 중진으로 박 의원을 적극 지지했으며, 부 대변인도 박 의원 선거를 도왔다.

앞서 임명된 조승래 사무총장과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였을 때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들도 정 대표가 다시 선임했다.

임 수석사무부총장과 한 홍보위원장은 같은 당직에 유임됐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